

출판단지 건설의 현실성

지난달 마지막날인 31일,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 현황과 계획에 관한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단지건설추진위원회측 인사들과 중앙일간지 및 방송사 출판담당기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출판단지 건설의 大役事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들-가령 토지매입 및 건축공사에 소요될 재원확보의 구체적 방안을 비롯해서 이른바 直住(직장과 주거지) 거리 근접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철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제기에 이르기까지-이 폭넓게 거론됐다.

거론된 문제들 가운데는 물론, 아직 출판단지 건설의 '현실성'을 전폭적으로 믿지는 못하겠다는

입장에서 제기된 것들도 있다. 그같은 현실성에의 의문은 그러나, 단지건설추진위원회로 대표되는 출판인들이 이 일에 대해 거는 기대와 그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결과 양을 감안할 때 결국 사소한 것이 되고 만다.

더이상의 신규가입을 마감한 5월30일 현재 가입사가 총394사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제대로 책을 내는 출판사는 거의 망라되다시피 한 데서 보는 것 같은, 출판단지 건설에 거는 기대의 크기도 크기이려니와, 입주계약·토지매입·사업협동조합 설립·착공 등으로 이어질 단지건설 추진계획의 치밀한 세목들에 있어서도 그것은 대단히 현실적이다. 최소한 현실적이라고 믿게 만드는

힘만큼은 그 속에 있다.

물론, 이날 배포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발기에 즈음한 우리의 의견과 건의'에서도 솔직하게 시인돼 있듯이 거대한 출판단지의 건설에는 "현재의 출판계 사정으로서에는 힘에 부치는 일도 있고 정부차원에서 결정해줘야 할 일도 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결정해줘야 할 일들의 경우, 그것은 어쩌면 출판단지 건설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단지 건설은 결국 출판계 스스로의 일로, 출판인이 이 일에 대한 최종적인 담당자이며 책임자라는 인식에 출판계가 합의하고 있음은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理解와 利害의 얽힘 속에서도 그것을 풀어 제가닥을 잡아가는 출판계의 공동노력을 이 출판단지 건설추진이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출판단지 건설은 '사실'로 굳어지는 느낌이다.

—강철주 부장

출판저널

통권 제63호/1990년 6월 5일 발행

발행인—鄭鎮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崑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李權雨 鄭素淵 崔兌源 鄭蕙근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광고—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와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산사자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
천요건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평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亭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橫鏞廈 安秉永
安輝潯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瑋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勝羽 李元毅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鎮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軒震 韓勝憲(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조합 포함)의 A 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와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었습니까.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실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6월 25일까지 「출판저널」독서퀴즈 담당자앞(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제65호(7월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천, 금성교과서(주)에서 펴낸 「뉴에이스英語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1

다음의 시조 두首는 조선 선조때의 문장가 白湖林梯와, 그와 교분이 있었던 평양기생이 주고 받은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 그 이름이 암시돼 있는 이 평양기생은 누구이겠습니까?

“북천이 맑다커늘 우장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 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잘까 하노라”
“어이 얼어 자리 무스 일 얼어 자리
원앙침 비취금을 어디 두고 얼어 자리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녹아잘까 하노라”
① 梅窓 ② 寒雨 ③ 松伊 ④ 明玉

문제2

조선시대의 시조 중 妓流들이 지은 작품들에는 지방관으로 있다가 중앙으로 돌아가는 情人과의 이별을 노래한 것이 많습니다. 선조 때 洪原의 名妓 洪娘이 중앙으로 돌아가는 정인과의 이별의 슬픔을 읊은 다음 시조의 '님'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님'은 조선중기 三唐詩人의 한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문장가로 호는 孤竹입니다.

“릿머들 갈해 젓거 보내노라 님의 손대
가시는 창 밧기 심거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났곳 나가든 날인가도 여기서소”
① 張維 ② 白光勳 ③ 崔慶昌 ④

李達

문제3

조선 선조때의 문장가 村隱 劉希慶은 천민 출신이면서도 시인으로서의 文名을 날린 사람으로 당시 영의정이던 박순을 비롯한 양반사대부들과도 교분이 깊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부안의 한 名妓와 주고받은 시들로 인해 우리 국문학사상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는 그 名妓와의 첫대면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그 名妓는 누구이겠습니까? (“이화우 흘날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으로 시작되는 시조는 그 명기가 촌논과의 이별의 슬픔을 읊은 작품으로 전해집니다.)

“남국의 계량 이름 일찍이 알려져서
글제주 노래썩씨 서울까지 울렸어라
오늘에서 참모습을 대하고보니
선녀가 떨쳐입고 내려온 듯하여라”

① 梅窓 ② 竹西 ③ 一枝紅 ④ 玉峰

제61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1호

(5월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58통, 이중 정답자는 41통이였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들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 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편집실로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 드립니다.

문제1

② 紅一點

문제2

③ 李商隱

문제3

① 리어왕

문제4

② 구운몽

당첨자

김병희(충남 논산군 논산읍 부창1리 246-23번지 20호)

박찬남(경남 진주시 장대동 94-28번지)

이명숙(서울시 마포구 131-10)

이동희(전북 전주시 덕진동 오성유토피아 E동 407호)

신경혜(강원도 정선군 사복읍 8리 1번)